

Assisted Living Facility(노인 반의탁 시설)의 계획(I)

임철우, AIA

〈병원전문건축가 · KLIM & Associates, 서울〉

1. Assisted Living Facilities(ALF)

ALF(반의탁 시설)는 장기노인보호시설의 대안으로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독립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노인시설로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노인시설이며 일상생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반의탁시설은 노인을 노인 집단거주시설밖에서 가능한 오랜동안 살 수 있도록 계획된 새로운 개념의 주거유형이다. 양로원의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양로원의 입주를 기피하는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ALF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독립성과 선택, 자율성과 사생활이외에도 개인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켜주는 반의탁시설은 어떠한 기관으로가 아닌 주거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물리적, 조직적으로 병원과 유사하며 건축법규도 병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은 침대의 숫자와 병실을 모니터하는 간호스테이션의 위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 효율성은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하에서 중앙집중화된 계획을 요구한다. 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의 법규상 간호 스테이션에서 병실의 문까지 최대거리를 27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실의 폭은 좁아지며 중복도형을 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2인실의 형태는 병원과 유사하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결혼하여 자녀들이 성장한 후 복귀

하는 직장으로 이러한 간호사와 조무사들은 의료시설에서의 트레이닝에 습관이 되어있으며 노인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존엄성보다는 효율성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직원은 단기치료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기간호에 대한 해결안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반의탁시설은 나이든 사람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편안한 거주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설이다. 반의탁시설은 개조된 호텔이나 빌라도 이용되며 현재 미국에서 ALF는 그 주거시설의 서비스가 전문간호서비스(Skilled Nursing Care)와 노인집합 주거시설(Congregate Housing) 중간정도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인기가 높은 노인주거시설이다. ALF는 건물의 형태, 규모, 배치상에서 가정과 같은 느낌을 주며 개인가정이 모여있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조하는 형태를 취한다. 서비스는 운영에 따라 다르며 다양하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가족과 머무르고 필요한 일상생활 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불가능하여지는 경우 집단주거시설로 옮겨지게 되며 ALF가 가장 다음으로 선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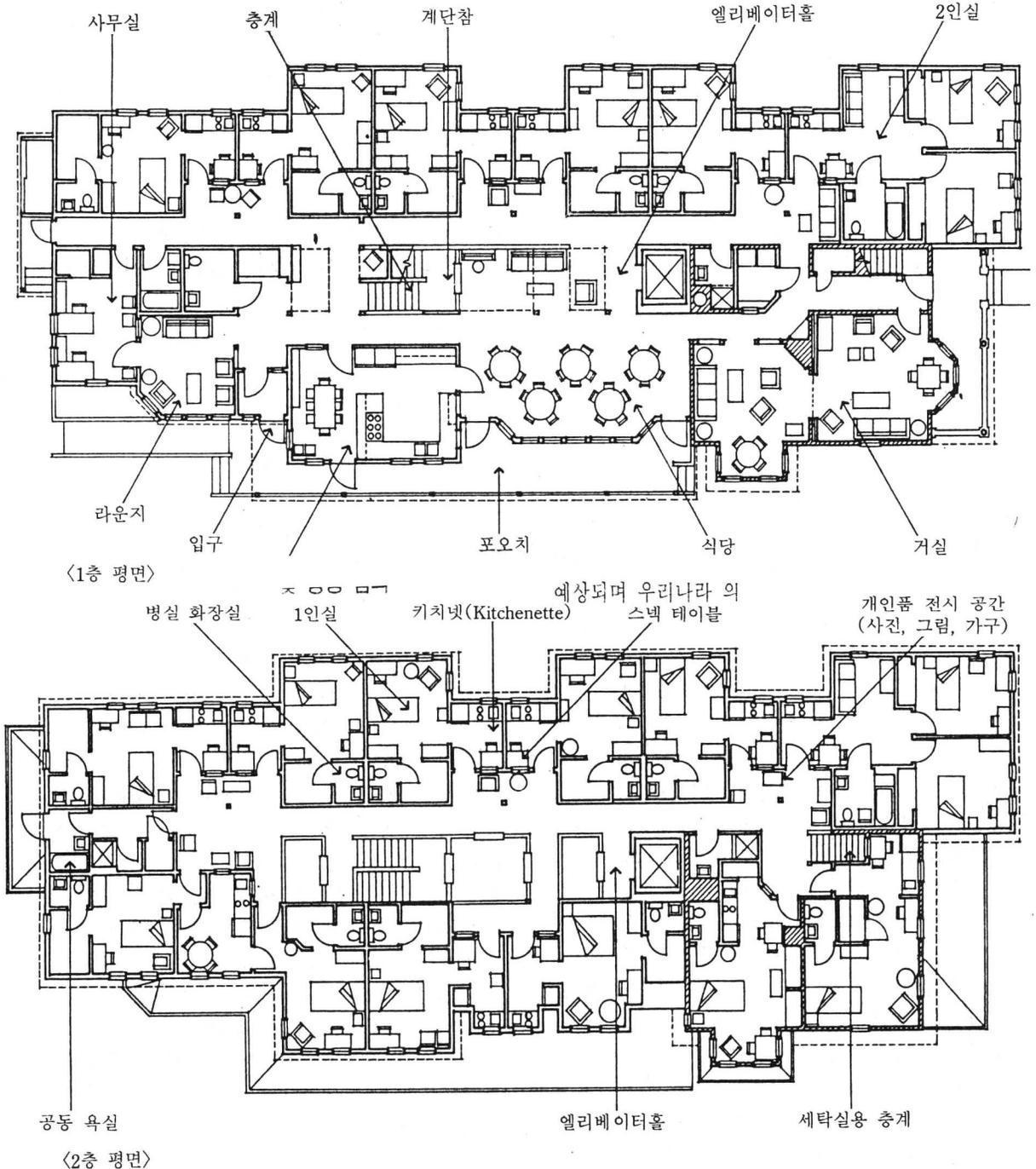
반의탁시설의 기본 아이디어는 수용시설의 환경 아래에서 보다 가정적이며 선택적 환경속에서 일상생활

서비스와 어느 정도의 간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의탁시설(ALF)의 특성〉

1) 가정적(residential)형태

병원의 환경보다는 개인주택의 물리적환경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의탁시설의 외관과 이미지, 기존건물을



〈그림 1〉 Captain Eldrige Congregate House Hyannis, MA

상상할 때 개인주택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상은 건물의 외관과 배치 혹은 내부공간의 가구배치 등도 포함된다. 건물의 겉모습은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사진 지붕, 부속현관, 그리고 창호 등도 개인주택과 유사하게 디자인한다. 외부의 자재나 실내마감재도 주택과 유사하며 방의 내부 배치도 마찬가지이다. 거주단위는 개인 주택이나 빌라의 형태를 취하고 작은 담소공간과 모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작은 느낌(Perceived Small)

ALF의 규모는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체적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위하여서는 40유니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건물이 커질수록 건물은 거주자들을 쉽게 압도할 수 있다. 거주자들이 서로 알고 관리자를 알때 가족이라는 느낌이 생긴다. 입주자와 관리자 또는 입주자끼리 서로 알고 지낼때 가족이외에 제2의 준거집단이 형성된다.

3) 시설 안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유닛의 완전한 시설 작은 부엌(Kitchenette)과 욕실은 주거단위의 독자성을 준다. 가능하면 가족이 잘 수 있는 작은 방도 큰 역할을 한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개인의 가구, 전시품사진, 공예품, 개인 수집품을 위한 공간을 고려한다.

4) 입주인 개성의 인지

반의탁시설로 들어오는 노인인 모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다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

James E. Birren과 같은 노인병 전문의사는 노인이 나이가 들에따라 지난날의 경험과 개인적인 장점 및 단점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상하게 느끼게 하기 보다는 편파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이해와 조화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집단 환경 안에서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설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흥미와 차이점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5) 독립성, 상호의존, 개성의 증진

입주자의 평가는 각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관한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시설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상적인 시설은 입주자의 배경과 능력이 비슷한 집단이며 프로그램의 선정도 용이하다. 거주자의 상호작용이 없는 시설은 관리자에의 의존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와도 격리된다.

6) 건강유지, 신체적 관리 및 정신적 자극

ALF의 목표는 보호기관의 수용을 피하는 것이며 질병의 예방, 좋은 식품섭취, 투약의 관리 프로그램을 세우고 신체 및 정신의 불사용(disuse)으로 기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독서와 토론과 같이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 또한 사회성과 사교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서로의 우정을 찾게하여 준다.

7) 가족의 참여

입주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반의탁시설과 협조적으로 입주자의 생활에 참여한다.

8) 지역사회와 연계

지역사회와 접촉하여 여러가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다.

9) 노약한 입주자의 보호

가능한한 ALF에서 오래 살도록 보호하고 노인요양 시설이나 노인병원으로 옮기지 않도록 보조한다.

2. 디자인의 원칙

반의탁시설에 대한 모델을 주문할 때 Keren Brown Wilson은 물리적, 운영상 환경에 관한 6가지 속성들을 고려하고 노약자의 주거시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 사생활
- 2) 존엄(Dignity)
- 3) 선택(Choice)
- 4) 독립
- 5) 개성(Individuality)
- 6) 집과 같은 환경

반의탁시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균형있는 주거환경을 계획하기 위한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1) 프라이버시

다른 사람들의 갑작스런 방문이나 관찰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물리적 환경은 노인들에게 자신과 독자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의 분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청각적, 시각적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사생활을 집단 주거시설 내부에서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2인이 사용하는 방에 의존하는 노인입주시설은 사생활의 어려움이 있다.

2) 사회적 상호작용



- | | |
|-------------|----------|
| 1. 라운지/서재 | 5. 청소도구실 |
| 2. Tea Room | 6. 공동욕실 |
| 3. 주방 | 7. 1인실 |
| 4. 로비 | |

〈그림 2〉 Sunrise Retirement Community, Fairfax, VA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제의 기회를 고려하여 환경을 계획하며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오락, 토론, 그리고 친교등의 공간을 계획한다.

3) 조정/선택/자율성

거주자들이 선택하고 조정하는 환경을 계획하고 이러한 기회를 증진시킨다. 제약적이고 통제적인 시설 안에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느끼며 만족하지 못하며 보다 의존적이 된다. 자신의 환경을 조정하며 지배하는 것은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며 자율성을 도모

한다.

4) 접근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과 조작은 필수적 기능에 속하며 휠체어나 보행기사용 노인이 적응할 수 있는 장애자 접근공간을 고려한다.

5) 자극/도전

안전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적당한 자극적인 환경은 노인들이 방심하지않고 바쁘도록 하므로 중요하다. 자극은 공간의 다양함, 색

상, 질감, 대조로부터 생긴다. 음악, 다른 세대간의 교류, 애완동물등도 자극의 요소가 된다.

6) 시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등은 나이가 들에 따라 쇠퇴한다. 이러한 점을 디자인에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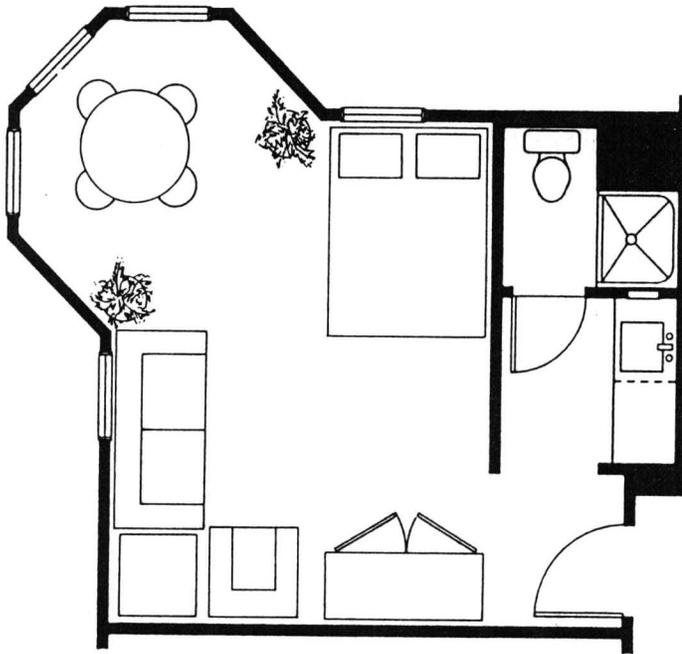
3. 시설의 디자인 요소

반의탁시설에 이용되는 건축적, 인테리어적 요소는

아니라 다른 노인의 활동을 관찰하고 안전한 활동공간으로서도 적합하다.

D. 조경

식물들은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좋은 자극이 되며 신체요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노인들은 이웃과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경된 정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책을 할 수 있고 활동적이며 자유스러운 공간으로



1인실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최근 계획된 미국이나 유럽의 시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A. 거리로서의 복도

밀폐되고 단조로운 중복도를 벗어나 고무적이고 밝은 복도를 계획하며 외기에서 자연광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며 정원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입주유닛의 개인화

유닛마다 전실의 개념을 도입하고 나무, 그림, 사진 등을 장식하고 개인의 취미에 따라 디자인하도록 하며 작은 공간(nook)를 두어 개인주택의 입구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C. 중정(Atrium)

주거시설 사이의 중정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일 뿐

휴식의 공간도 겸하게 된다.

E. 연결공간(Linking Space)

복도는 주요기능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나 노인시설에서 가장 계획에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비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고 교제하며 친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하고 변화있게 계획한다. 이러한 계획은 길찾기에 도움이 되며 입주노인의 방황도 감소하도록 계획한다.

F. 실내와 실외의 사잇공간

외부와 내부가 접하는 공간은 현관, 아케이트, 발코니, Porch등으로 외부조경을 조망할 수 있고 외부를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러한 부분의 계획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매우 가치있는 공간이다. 이

러한 공간은 외부의 자연을 영입하고 외부의 온도변화나 자연의 변화를 차단하는 설비나 건축요소로 조정하도록 배려하여 계획한다.

G. 입주 유닛의 단위화(Unit Clusters)

입주유닛을 몇개의 단위로 묶어서 그룹화하므로 하

나의 단위가 일체감을 가지고 이 단위의 노인들이 연대감을 느끼고 하나의 그룹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단위에 작은 라운지를 계획하여 물리적으로 다른 그룹과 구분이 없도록 하며 서로 도우며 비공식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한다. *